

우수한 주행 능력·안전성...캐스퍼EV, 일본서 돌풍

GGM 생산 인스터, 日 대표 이커머스 '라쿠텐카'와 협업 마케팅 진행
일본경제신문 기자 시승기 통해 “최고의 차” 극찬 등 현지 언론 호평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하는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수출명 인스터)이 일본에서 거센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는 일본 유력 신문으로부터 ‘우수한 주행 성능’이라는 호평을 받고, 현지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과 마케팅을 위한 협업을 하는 등 돌풍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일 GGM에 따르면 일본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 소속 기사는 지난 5월 20일자로 인스터 시승기를 게재했다. ‘현대차 수입 EV, 최저가 285만원, 일본 시장의 승차감을 기자가 체험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인스터가 좁은 일본 도로에 적합한 차량이며 주행 성능이 우수하고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등 안전 사양 장착에 높았다고 보도했다.

인스터를 시승한 기사는 “일본 차량은 브랜드력으로 일본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향후 가격과 성능에서 인스터를 이기는 차량의 투입이 없다면 언젠가 일본 메이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4월 현지 발매된 인스터는 완충 시 최대 이

동 거리(항속거리) 458km로, 비슷한 수준의 일본 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항속거리를 자랑한다. 일본 EV는 항속거리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로 세컨드카로 이용되고 있으며, 닛산의 경차 EV 사쿠라는 전체 EV 판매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항속거리는 180km에 불과하다.

현대차 인스터는 또 다목적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SUV)면서도 전체 길이 약 3.8m, 전폭 약 1.6m로 토요타 자동차 ‘아리스’보다 몸집이 작아 좁은 일본 도로 주행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다.

기자는 “EV인 것 같은 매끄러운 가속이지만 급발진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EV와 엔진 차의 중간 정도 가속을 느꼈다”며 “운전에 서툰 나도 부담 없이 고속도로에 합류할 수 있었고 고속도로에서도 소형차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힘을 느꼈다”고 시승기를 마무리했다.

인스터는 현지 유명 브랜드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는 완성차 업계 최초로 1억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일본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 ‘라쿠텐카’와 협



현대차가 일본에서 판매 중인 소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수출명 인스터)의 어라운드뷰.

업체 인스터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메기 토시유키 현대모빌리티재팬 사장이 출연해 라쿠텐카의 인스터 소개 방송을 진행했는데, 누적 시청자 수만 6만명을 넘겼다. 시메기 사장은 지난 4월 GGM을 방문해 생산 과정을 견학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인스터를 발판으로 향후 5년 내 일본 판매량을 10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놔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올해 목표로 세운 일본 인스터 판매량은 7800대다. 이는 인스터를 위탁생산하고 있는 GGM의 생산 목표 대수를 기반한 것으로, 지난해 전체 일본 내 판매량을 넘어서는 수치다.

현대차는 일본 도로의 특성과 일본 시장에 맞는



현대차가 일본에서 판매 중인 소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수출명 인스터) 외부 모습. <현대차 제공>

차를 개발하기 위해 일본 내 연구개발(R&D) 거점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FM 요코하마 방송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 인터뷰·시승기 형식의 길거리 콘텐츠도 제작하며 현지화 브랜드 노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캐스퍼 일렉트릭(인스터)이 일본 현지 신문에서 호평받은 만큼 협업 등 다양한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해 현지 소비자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테슬라 대체할 車...미국 매체 “아이오닉6·EV6 추천”



현대차 아이오닉6.



기아 더뉴 EV6.

전기차 1위 테슬라, 소비자 외면
미 일렉트릭 “현대차·기아 주목”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 개입 등으로 미국 전기차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마운틴이 박히면서, 테슬라 대체 브랜드로 현대차·기아가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릭’은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급감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테슬라 대표 모델인 모델3와 모델Y를 대체할 유력 차량으로 현대차 아이오닉6와 기아 EV6를 각각 추천했다.

그동안 전 세계 전기차 시장 1위 브랜드로 질주하던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트럼프 정부 효율부(DOGE) 활동과 급진적 정치 색으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소비자의 외면을 받으면서 수개월째 고전 중이다.

올해 1분기 테슬라 매출과 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9%, 71% 감소했고, 주가는 올해 들어 한 때 40%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테슬라의 부진에 더해 각국 비판이 거세지자 머스크는 지난 30일 정부 효율부(DOGE) 수장 지위까지 반납했다.

매체는 테슬라 부진에 중국 업체들도 부상하고 있지만 현대차·기아가 테슬라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브랜드라고 설명하면서, 테슬라 주력 모델인 모델3의 대안으로 아이오닉6가 가장 큰 존재감을 보인다

고조했다.

일렉트릭은 아이오닉6의 최대 강점으로 최대

338마일(544km)의 주행거리와 350kW 급속충전 기능, 공기역학 설계 등을 지목했다.

또 EV6는 고성능 모델인 GT가 테슬라 모델Y의 직선 가속 성능을 즐기던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EV6 GT가 람보르기니, 메르세데스-AMG GT, 포르쉐, 터보차저가 적용된 페라리 등 내연기관 스포츠차들과 드래그 레이스를 펼쳐 모두 앞서는 성능을 입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자동차 업계는 테슬라의 독점적 위치 약화에다 최대 강점 중 하나인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개방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고 보고 있다. 테슬라는 최근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자사 충전소를 포드, 현대, 기아 등 경쟁사에 개방한 바 있다. /김해나 기자 khn@

“기아와 추억 공유하고 신차로 차박하세요”

‘인스파이어링 스토리 위드 기아’ 행사…30일까지 사연·사진 공모

기아는 ‘쏜렌토·카니발·스포티지, 셀토스 등 주요 RV(레저용 차량) 라인업에 대한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인스파이어링 스토리 위드 기아(Inspiring Story With Kia)’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4월 기아 국내 RV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8.4% 늘어난 12만 8606대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자동차 시장 성장률(3.9%)을 크게 웃도는 성과로, 기아 RV의 인기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이번 행사는 ‘기아와 함께한 추억’ 공모전으로 진행되며 기아 차량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객은 기아와 함께한 행복했던 일상을 사진과 함께 사연으로 응모하면 된다. 당첨 시 체험 프로그램 3개 중 희망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함께 선택해 오는 30일까지 기아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HMG 캠핑 익스피리언스, 신차 시승, 보유 차량 케어 등이다.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은 참가 고객 20팀(각 팀 최대 4인)을 선정해 오는 9~10월께 충남 태안군에 있는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진행된다. 선정된 고객은 EV3·EV9 등 기아 전기차를 1박 2일간 시승할 수 있고 캠핑 체험에 활용할 수 있는 캠핑 장비를 받는다. 먹

거리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장비기 비용 10만원도 지원된다.

신차 시승 프로그램은 당첨된 100명의 고객이 타스만·EV4 등 기아 신차를 7박 8일간 경험할 수 있다. 시승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이며 기아는 참여 고객에게 시승 기간 중 유튜브 10만 원을 지원한다.

보유 차량 케어 프로그램은 고객 200명을 추천하고 자동차 내·외장 관리 전문 브랜드 소낙사와의 협업을 통해 내·외부 스페셜 세차와 전면 유리 유막 제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께 개별 안내된다. 당첨 사연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고객의 추억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특별 전시 형태로 공유될 예정이다.

기아는 또 이번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올해 기아 세단이나 RV 차종을 재구매하면 사용할 수 있는 로열티 재구매 할인 쿠폰 10만 원을 제공한다.

기아 관계자는 “국내 RV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고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과 기아가 함께 써 내려온 소중한 이야기를 되돌아보고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로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